남성복 부토니에 디자인 연구

김 정 희

가천대학교 예술대학 패션디자인전공

The Boutonniere Design in Men's Fashion

JungHee Kim

Professor, Dept. of the Art, Fashion Design, University of Gachon

(received date: 2015. 5. 21, revised date: 2015. 7. 10, accepted date: 2015. 8. 19)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boutonniere, a floral decoration, history of boutonniere, a floral decoration, with a focus on its aesthetics, its practical use and its traditional meaning. After the examination of its history, the paper, recreated the proceeds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both the contemporary men's fashion, as well as the boutonniere designs of the past. The three factors of contemporary boutonniere design, in brief, are its historical meaning, the visual aesthetics and the wearability. In this paper, the research and design steps are as followed below.

First, the paper examined the history of men's fashion leading up to the twenty-first century in order to get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boutonniere.

Second, the paper attempted to find the most suitable fabric materials and flowers for the boutonniere, in order to produce diverse boutonniere that can be worn in any season and occasion. As for the fabrics that can be used to make the boutonniere, organza can be used for the S/S season, and wool, tweed and suede can be used for the F/W season. The major characteristics that differentiate the kinds of boutonniere are the "Carnation" and the "Rose of Sharon".

The 'Rose of Sharon' boutonniere as the symbol of our nation possesses an intricate meaning and practical function, so that this boutonniere is used as an alternative badg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other social-national institutions and their members. This idea expands into other social and individual features that the boutonniere is a differentiated fashion item that provides other personal styles and expresses individuality.

Key words: Boutonniere design(부토니에 디자인), Bouquet(부케), lapel(라펠), men's suits(남성정장), men's accessories(남성장신구).

I. 서론

현대패션에서 대중의 선호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크게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과 유행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나눌 수 있는데, 그 사이의 기준은 이러한 유행을 받아들이느냐 혹은 그러지 않느냐의 따른 것이다. 두 부류의 집단 모두 현대의상의 발전적 흐름을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로운 스타일의 의상을 추구하는 집단과 기존의 혹은 지나간 유행의 스타일을 여전히 고수하는 집단 간의 다른 성향을 모두 적용시킨 조화로운 패션 디자인을 하는 것이 시대에 종속하지 않는 보편적인 디자인의 추구방식이며 디자이너로서의 의무이다. 동시에 이러한 보편적인 디자인이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재탄생하는 것이 대중이 현대패션에 미치는 큰 효과일 것이다.

최근 들어 남성들이 몇 내기에 큰 관심을 갖고면서, 남성들을 위한 패션디자인도 사회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 패션은 여성을 위한 것이라는 기존의 선입견이 많이 줄어들면서 남성의류가 연령대별로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어 의상뿐만 아니라 머리장식부터 신발까지 그리고 그 외에 패션에 관한 다양한 부속품까지 개발되고 있다. 또한 클래식한 몇 내기에 익숙한 남성들이 많아지면서 정장문화 또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정장의 주된 요소부터 정장착용의 마무리를 위한 각종 장식품의 활용은 필수요건이다. 부토니에(Boutonniere)는 단춧구멍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지금은 수트 재킷 왼쪽 깃에 만들어진 작은 단춧구멍에 꽃과 같은 장신구를 꽂는 액세서리를 총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본 연구는 부토니에의 전반적인 역사적 배경을 기술하고, 부토니에의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부토니에의 전통적인 미와 실용적인 기능성을 함께 연구한다. 또한, 전통적인 부토니에를 현대의 클래식 정장부터 캐주얼까지 확장하여 대중화된 스타일로 새롭게 소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부토니에 고유의 의미와 시각적 아름다움 그리고 착용의 편리함의 세 가지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부토니에 디자인을 전개하고, 다양한 형태와 소재를 적용함으로써 부토니

에 디자인의 폭을 넓히는 것이 구체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본 연구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토니에의 어원과 유래를 조사하고 남성복의 시대적 변화를 중심으로 착용방법을 연구한다.

둘째, 부토니에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카네이션의 형태를 계절에 적합한 소재를 활용하여 디자인 개발을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의 형태를 디자인에 적용함으로써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효과의 부토니에를 개발한다.

이를 통한 연구결과로 부토니에 디자인의 소재 및 형태를 전개시켜 현대의 남성장신구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II. 부토니에의 역사

부토니에의 유래는 16세기를 기준으로 시작되는데 “Boutonniere”는 “Buttonhole Flower”를 뜻하는 프랑스 단어이다. 초기에는 부토니에를 착용하는 목적이 나쁜 운이나 악마의 기운을 쫓기 위해서였다. 부토니에는 신부의 부케와 같이 길거리의 악취나 질병 등을 막기 위해 향기가 좋은 꽃을 몸에 지니는 목적으로 쓰이고, 또 동일한 가치를 갖는 의미로 남성의 모자나 재킷, 코트에 착용하였다(Genes, 2010). 16세기 중반의 프랑스 그림들에서 부유한 남자들의 윗옷들이 정치적인 소속성을 보여주기 위해 단순하게 배열된 꽃들로 장식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부토니에는 빅토리안 시대에 영국에서 ‘꽃의 언어’로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Kidder, 2015).

부토니에는 남성 개인의 세련된 멋과 교양을 표면적으로 잘 보여주며 또한 그들의 멋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부토니에는 남성정장의 장신구로써 무려 5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긴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부토니에는 대부분 결혼식과 같은 특정한 날에만 주로 착용되어진다. 결혼식의 부토니에에 관한 유래는 다산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악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 부토니에를 착용하였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남성들은 결혼식 날에 클래식한 부토니에 꽃을 꽂는다

(George, 2013).

중세시대에는 전쟁이나 규모가 큰 창 시합에 나가는 기사들이 주로 작은 리본, 스카프, 꽃이나 깃을 기사들의 부인과 가족들이 그의 심장에 가까운 왼쪽 팔부위쪽에 꽃아주곤 했다. 유명한 구절인, “wearing your heart on your sleeve” 혹은 “믿음과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라”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유래되기도 하였으며, 기사도 정신의 본보기가 되었다(Genes, 2010). 현대의 남성들은 이러한 유래를 바탕으로, 최근 신부의 부케에서 꽃을 뽑아 결혼식장장 왼쪽 라펠 위에 핀을 고정시키는 것으로 대신한다. 부토니에 착용이 보편화된 18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시대적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18세기

18세기에 들어서 남성 의상이 현저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개성을 중요시하는 남성복이 유럽전역에서 보편화 되었고, 영국신사의 느낌을 주는 프록코트(frock coat)나 반바지 그리고 부츠를 신는 것이 프랑스인들에 의해 유행되기도 하였다(Angeloni, 2000). <fig. 1> 이 시기 동안에 남성들은 큰 꽃을 프록코트 단춧구멍에 꽂고 다니기도 하였으며, 곧이어 많은 남성들 사이에서 이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그 이후부터 프록코트의 맨 윗 단추를 채우지 않고 뒤로 접으면서 라펠을 형성하였고, 그 자리에 꽃을 꽂고 다니게 되었다(Angeloni, 2000). <fig. 2> 18세기에 들어서 영국의 신사들은 그들의 프록코트 가장 위에 위치한 단춧구멍에 정원에서 꺾은 꽃을 꽂았다(Angeloni, 2000). <fig. 3>

2. 19세기

19세기에 접어들며, 낭만주의와 특히 자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부토니에는 옷을 장식하기 위한, 더 화려한 형태로 변화하고 유행하게 되었다(George, 2013). 19세기말부터는 부토니에를 착용하는 것이 멋내기를 좋아하는 남성들의 필수 장식품이기도 하였다. 생화로 부토니에를 착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시곗줄, 담배케이스 그리고 정장 핀과 더불어

라펠에 달린 꽃은 그 날을 장식할 정도로 중요한 남성 액세서리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그 꽃들이 ‘버튼홀 플라워’(Buttonhole flowers)라고 불리었다(George, 2013). 이미 수세기 전부터 결혼식 때에 꽃을 의상에 함께 장식하는 관습이 지속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토니에 관습이 1840년에 알버트 왕자와 빅토리아여왕과의 혼사에서 유래하였다고 현재까지 오해되곤 한다. 알버트 왕자가 부토니에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지만 이 유명한 전설은 그가 그의 자켓에 구멍을 내서 여왕의 부케에서 꽃을 따와 꽂았다고 전한다(Kidder, 2015).

1865년에 들어서서 자켓이나 코트에 봉제된 라펠의 단춧구멍이 생겨났고, 그 단춧구멍 밑에 작은 꽃병을 지지하기 위한 큰 리본이 디자인되었다(George, 2013). <Signing the Marriage Register>이라는 1890년에 그려진 제임스 찰스(James Charles)그림엔 어부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신부의 신랑과 가장 멋진 작업복을 입고 있는 신부의 아버지가 등장한다. 둘다 흰색 장미 모양의 장식을 라펠부분에 꽂고 있다.<fig. 4>

19세기 후반에 미국 남성들이 그들의 의상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꽃을 꽂았다. American Florist: 1886 editions라는 잡지책저자 존 톨프(John Thorpe)(2009)는 유행에 민감한 남성들에게 결혼식 때 크기가 큰 프리지아 꽃들이나 흰 바이올렛 꽃을 저녁의 상에 함께 장식할 것을 추천하는 글이 나와 있다(Thorpe, 2009). <fig. 5> 또한 낮 동안에는 의상의 단춧구멍에 꽂는 몇 송이의 바이올렛이나 장미를 장식하는 것이 적합한 반면에 흰 색상의 꽃들은 일상의 평범한 때에는 부적합하다고 이야기한다(Thorpe, 2009).

3. 20세기

20세기 초반에는 부토니에가 세련미와 남성성의 상징으로서 장식핀, 커프링, 시곗줄과 같은 남성의 장식소품 중 하나였다. 통이 넓은 바지인 ‘옥스퍼드백’(Oxford bags)과 함께 재킷의 부토니에의 착용은 새로운 남성복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fig. 6> 할리우드 또한 부토니에를 유행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

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대중들은 프레드 아스테어(Fred Astaire)나 무함마드 알리(Muhammed Ali)와 같은 영웅적인 인물들을 따라하는 경향이 짙었기 때문이다(Angeloni, 2000).〈fig. 7〉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 영화계의 스타가 된 캐리 그랜트(Cary Grant)의 신사적인 느낌을 강조한 검은 양복은 주로 빨간 카네이션의 부토니에와 함께 장식하였고, 이 정장스타일은 그 당시 영국에서 기품 있는 왕족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보이기도 하였다. 1910년 미국 남성복 백화점 하우스 쿠퍼헤이머(House of Kuppe Heimer)의 프록코트와 모닝코트의 광고에서도 카네이션 부토니에를 착용하였다(Flusser, 2002).〈fig. 8〉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떠들썩한 시기에도 라펠에 꽃을 꽂는다는 개념은 특히 예술적 황금기인 ‘벨 에포크’(La Belle Epoque)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되었다. 20세기 초기의 영화들을 보면 부토니에가 부귀함과 남성적임을 상징하는 장신구로서 많이 등장한다. 캐리 그랜트와 클라크 게이블(Clark Gable)은 남성성을 보여주는 표본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멋있는 검은색 정장에 맞춰 세련된 부토니에를 착용하는 모습이 대표적인 이미지이다(Blackman, 2014).〈fig. 9〉,〈fig. 10〉 세계대전 이후로 바우하우스와 같은 엘리트적인 패션양식이 도입되면서 남성의 정장도 진화하였다. 정장의 많은 장식들을 배제시키면서 남성의 냉철하고 보다 이성적인 특징을, 간단하고

도회적인 정장의 디자인으로 승화시켰다(Anderson, 2009). 1939년의 클래식한 트위드양복은 세계대전동안 금지될 정도로 엄격한 사회의 분위기를 거치면서 맞춤식의 양복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1960년대에 들어 신사양복 대신에 청바지와 티셔츠가 대중화되면서 일상적인 장식으로서의 부토니에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미주와 유럽 전역을 통틀어 현대의 남성들은 양복이나 텍시도를 입어야 하는 형식적인 자리, 결혼식, 고등학교 댄스파티 그리고 군대의 베테랑 기념일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꽃을 장식하였다. 결혼식을 위한 부토니에가 20세기의 전형적인 부토니에의 기능이었다(Flusser, 2002).

오늘날의 부토니에는 결혼식과 같은 이례적인 행사에 특별히 착용되곤 한다. 그러나 원래 부토니에의 목적이 꼭 특별한 경우에만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량생산되는 기성복에 익숙해져있는 대중의 남성들에게 부토니에가 익숙하지 않다는 고정된 인식 때문에, 정장을 통해 개성을 표현한다는 것이 어려운 과제가 되어버린 것이다(Flusser, 2002).

Ⅲ. 현대 남성복의 부토니에 착용사례

결혼식 때에는 주로 한 가지 꽃이나 두 세 종류의 작은 꽃을 착용한다. 너무 크거나 뽀족한 꽃들은 불편할 수 있고, 무거울 수 있으니 피하기 때문이다.

〈18세기〉

〈Fig. 1〉 Captain William Wade (Gainsborough, T. 1771)

〈Fig. 2〉 The History of the Boutonniere (Genes. A. 2010)

〈Fig. 3〉 Frock Coat (Morning coat history n.d.)

<19세기>

<Fig. 4> Signing the Marriage Register
(Charles. J. n.d.)

<Fig. 5> Freesia Boutonniere
(Xoedge. n.d.)

<20세기>

<Fig. 6> 20C Boutonniere
(Blackman. C., 2014, p. 36)

<Fig. 7> 20C Boutonniere
(Blackman. C., 2014, p. 91)

<Fig. 8> 20C Cally, 100Years of Menswear
Seedpost.(Blackman, 2014, p. 15)

<Fig. 9> Cary Grant
(Umberto. A., 2000)

<Fig. 10> Clark Gable
(Gable. C., 2006)

대개 신랑은 결혼식에 참석한 다른 남성들의 부토니에보다 좀 더 큰 크기의 부토니에를 받는다. 신부의 부케와 같은 종류의 꽃으로 통일한다.<fig.11>,<fig.12> Harriette Cole(1995)의 Jumping the Broom에선 “결혼식에 있어서 부토니에는 신부의 부케를 소규모화한 것이다”라고 말한다(Flusser, 2002). 부토니에 디자인의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항상 남성의 심장 상단부에 부토니에를 달아야 하고, 1에서 1.5인치 사

이의 목을 보호할 수 있는 용도로서 부토니에를 라펠의 단춧구멍에 꽂아야 한다. 잘 봉제된 정장이라면 라펠구멍이 꼭 있어야 하고 꽃을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부토니에 꽃을 장식하기 위해서는 라펠의 단춧구멍이 잘 봉제되어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때에 따라 단춧구멍을 좀 넓히거나 카네이션 하단 부분을 지탱할 수 있도록 곡선의 패턴을 따라 재봉하기도 한다. 그리고 꽃의 줄기가 자켓

안에서 흔들려 밖으로 튀어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적인 디자인요소이다.

오늘날 전통적 방식의 부토니에는 그리 대중적이지 않다. The Measure of a Man: The Story of a Father, a Son, and a Suit의 저자이자 예술비평가인 Lee(2012)는 19세기에 아버지가 즐겨입던 양복에 대해 이야기하며, 현대의 양복에서 라펠이 단지 보여주기 위한 가짜 단춇구멍인 것과 현대남성들이 부토니에를 착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하였다(Lee, 2012). 그는 현대에서 부토니에를 착용하기란 여러모로 쉽지 않다고 말하며, 부토니에를 착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식적인 자리나 결혼식과 같이 특별한 날에만 일반적으로 되어버린 요즘, 남성복문화 뿐만 아니라 부토니에를 착용하는 방식도 큰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한다(Lee, 2012). 또한 전통적인 생화의 부토니에

는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생화의 부토니에를 발전시켜 금속이나 패브릭을 이용해 부토니에를 새롭게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이는 라펠의 단춇구멍에 꽃을 장식한다는 부토니에의 전통적인 관념을 넘어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하여 개성을 표현하는 장식적 수단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여성의 브로치(Broach)처럼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의 포인트 액세서리로서의 부토니에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부토니에는 '타이리스'(Tie-less)의 편안한 스타일링에도 간편하게 개성을 표현할 수 있어, 유럽을 시작으로 해외 패션계에서 부쩍 사랑 받고 있는 아이템이 되었다. 화려한 색채와 다양한 꽃 형태의 부토니에는 기존의 고전식이며 고양이, 부엉이, 새 등의 동물 모티브 등과 같이 다양한 모티브의 부토니에가 최근에 디자인 되고 있다. 천과 금속 등 실용적

〈Fig. 11〉 Bouquets and Boutonnieres
(Style motivation, n.d.-a)

〈Fig. 12〉 Bouquets and Boutonnieres
(Style motivation, n.d.-b)

〈Fig. 13〉 G-Dragon
(Sports Donga, 2014)

〈Fig. 14〉 Skeleton Boutonniere
(Photograph by LAFIGURA)

〈Fig. 15〉 Boutonniere
(Seoulsanghoe, 2013)

〈Fig. 16〉 Boutonniere
(Fashion source, 2015)

〈Fig. 17〉 Boutonniere
(Photograph by JungHee Kim)

인 소재를 사용하고 블루, 레드, 브라운 등 컬러도 다양해졌으며, 꽃이 아닌 다양한 모양의 부토니에도 많이 나오고 있다. 요즘은 원단이나 금속으로 만든 제품을 재킷의 라펠 단춧구멍에 정갈하게 꽂아 감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Lee, 2014). 실험적인 스타일링을 선호하는 대표적인 연예인인 지드래곤은 부토니에를 이어링으로도 활용하면서 개성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fig. 13)(fig. 14)

부토니에는 때에 따라 자켓에 넥타이 그리고 핸드 커프(Handcuff)와 함께 착용되기도 때문에 여러 패션 장신구들과 어우러짐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유행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는 새로운 스타일이 생기도록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유행양상에 따라 디자인 및 생산되는 다양한 패션스타일의 추구가 부토니에에도 나타났다(Hemphill & Suk, 2009). 그리고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끊임없는 노력은 패션의 전통적인 기준과 관습을 벗어나 '믹스매치'(Mix-match), '리믹스'(Remix)와 지속되는 창의적 시도이며, 패션유행을 지속시키는 핵심적인 요소이다.(fig. 14)(fig. 15)(fig. 16)(fig. 17)

IV. 부토니에 디자인 전개

과거 부토니에의 기능성과 심미성을 보완 및 재구성하여 현대 남성복의 부토니에를 새롭게 디자인하였다. 과거 부토니에의 단순한 기능을 넘어 사회기관의 배지, 정치위원의 무궁화배지, 웨딩부토니에 그리고 캐주얼 부토니에 등 부토니에의 복합적인 언어적 수단, 기능, 의미에 따라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부토니에의 형태를 재구성하였다.

1. 사회적 기능에 의한 전개

첫 번째,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무궁화모양의 배지와 같은 부토니에의 국가적인 기능이다. 의원들의 부토니에 배지는 제 2대 국회부터 제 18대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 문양을 형태화하여 디자인되어왔다. 이 무궁화배지는 의원 개개

인의 집단의 소속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정치적 상징과 같은 언어성을 지니고 있다. 부토니에의 장식적 요소가 사회적 지위를 나누고 표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 자연스러운 디자인이 된 예이기도 하다. 또한, 정치적 임기가 끝나고 시작됨의 시기적 규칙성에 따라 디자인이 변화한다(Roland, 1990).

두 번째, 사랑의 열매와 같이 사회기관을 상징하는 배지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법정 모금 및 배분의 기관이며 국민의 성금을 모아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노인 그리고 여성 등 돕기 위한 복지사업기관이다(Community-Korea).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는 언론인, 정치인 및 공무원들이 대표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사회적 의미의 배지이다(The-romance, 2014). 사랑의 열매는 사회적 신분의 표현수단이라기 보다 사회복지에 공헌한다는 의미가 크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사회적 기관을 중심으로 정한 상징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변화여부가 기관의 선택에 따르며, 크지 않다. 사회에 공헌한다는 복지의 개념이 사랑의 열매 배지 디자인에 적절히 반영됨으로써 사회적 부토니에의 기능과 의미가 조화로운 균형을 갖는다. 사랑의 열매와 같은 공동개념을 갖는 사회적 부토니에의 핵심은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혹은 '함께'라는 상징적 의미를 디자인에 밀바탕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2. 형태 및 소재에 의한 전개

위와 같이 사회적, 공식적인 표현수단의 기능을 바탕으로 카네이션, 무궁화의 형태를 계절의 맞는 다양한 소재 그리고 크기변화를 주어, 다음과 같이 디자인하였다.

1) 카네이션에 의한 전개

카네이션이 예술적인 소재로 사용되면서, 고대의 기독교인들은 성모마리아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십자가에 몸을 바쳤을 때, 눈물을 흘리며 뿌린 꽃이라고 믿었다(History-carnations, 2012). 이 외에도 카네이션은 다양한 상징을 의미한다. 빨간 카네이션은 존경을 뜻하며, 매우 짙은 빨강의 카네이션은 깊은

〈Fig. 18〉 Carnation Boutonniere
(Arena homme+, 2012, p. 431)

〈fig. 19〉 Carnation Boutonniere
(Vogue Korea, 2010, p. 132)

〈fig. 20〉 Carnation boutonniere
(L'officiel Hommes, 2012, p. 161)

〈fig. 21〉
Carnation boutonniere
(LaFigura by thestudioK)

〈fig. 22〉
Carnation boutonniere
(LaFigura by thestudioK)

〈fig. 23〉
Carnation boutonniere
(LaFigura by thestudioK)

사랑과 애정을 의미한다. 그 뿐만 아니라, 카네이션은 다양한 행사에 사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카네이션을 매력적인 꽃으로 해석한다. 흰색의 카네이션은 공식적인 자리에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평소에 무난한 꽃이다. 따라서 카네이션의 다양한 상징적 의미 때문에 일상적인 캐주얼 복장이나 공식적인 자리의 구분 없이 카네이션을 부토니에의 주소재로 착용하는 것이 가능하다(George, 2013). 〈Fig. 18〉〈Fig. 19〉〈Fig. 20〉

이 연구에서 디자인한 카네이션 부토니에는 카네이션 꽃의 고유한 꽃잎이 주는 느낌을 소재에 따라 꽃의 형태에 변형시켜주었다. S/S시즌에 속하는 부토니에는 노방과 오간자(Organza) 그리고 데님(Denim)의 소재를 사용하여 가볍고, 여성적이며 여름정장이

나 자켓에 어울리는 밝은 색상을 사용하여 디자인하였다. 특히 여름시즌의 카네이션 부토니에는 소재의 시원하고 가벼운 느낌에 대조되는 꽃잎의 겹층을 더욱 강조하여 복잡하지만 화려한 느낌의 디자인을 하였다. 그리고 F/W시즌과 비교했을 때, S/S시즌의 카네이션 부토니에는 작은 크기이며, 밝은 색상의 화려함과 겹층 형태의 복잡함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을 형성하기 위하여 알맞은 비율을 찾고 형태를 디자인하였다. 그리고 노방과 오간자처럼 가벼운 소재의 s/s시즌용 부토니에는 티셔츠나 반팔 정장셔츠에도 함께 착용할 수 있다. 빨간색 카네이션은 검은 정장 또는 스포츠 자켓이나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빨간색상은 사계절 부토니에에 모두 공통으로 사용하였다. F/W시즌의 부토니에는 울(wool), 스웨이

〈fig. 24〉
Carnation boutonniere
(LaFigura by
thestudioK)

〈fig. 25〉
Carnation boutonniere
(LaFigura by
thestudioK)

〈fig. 26〉
Carnation boutonniere
(LaFigura by
thestudioK)

드(Suede), 트위드(Tweed) 소재등과 같이 겨울용 정장에 주로 쓰이는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갈색, 보라색, 짙은 초록색과 같은 어두운 톤의 색상을 사용하

여 계절의 무게감을 더해 주었다. 여름용 소재에 비해 두께가 두꺼운 겨울용 소재들은 카네이션의 단순화된 형태로서 겹층의 꽃잎구성보다는 소수의 꽃잎

〈Table 1〉 Design Chart of the Carnation Boutonniere

(freegreatpicture, 2010)

을 중심으로 간략한 형태를 디자인 했고, 형태의 단순함과 균형을 이루도록 무거운 느낌의 소재와 어두운 색상을 택하였다. F/W시즌의 부토니에는 신사적이고 남성적인 품위를 주제로, 고전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Table 1>과 <Table 2>이 카네이션 부토니에의 디자인 전개방식을 요약적으로 설명한다.<fig. 21><fig. 22><fig. 23><fig. 24><fig. 25><fig. 26>

2) 무궁화에 의한 전개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무궁화(無窮花)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고조선 이전부터 무궁화를 하눌 나라의 꽃으로 여기기 시작하였고, 신라때는 옛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古朝鮮) 이전부터 하눌 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으며, 신라는 그 당시 나라를 '근화향'(槿花鄉 : 무궁화 나라)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무궁화는 여름과 가을 시즌동안 매일 꽃이 피며, 어떠한 환경적 제약 없이 잘 자라는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우리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바

라는 믿음을 의미하기도 한다(Lee & Hong, 2009). 또한, 우리나라의 국화로서 무궁화는 사회적, 정치적, 국가적인 의미가 크다.

무궁화는 정치기관이나 정치인들이 조국의 상징을 국내외에서 시각적인 요소로서 사용되며, 국가행사나 귀빈을 맞이하는 공식일정과 같은 때에 나라의 상징적 문양으로도 흔히 사용된다. 특히 청와대나 국회, 시의회, 구의회에서 무궁화를 상징적 문양으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Table 3>과 <Table 4>에서 디자인 전개방식이 설명되었듯이 무궁화의 형태를 중심으로 부토니에를 디자인함으로써 한국인만의 차별화되고, 또 국가를 상징한다는 함축적 의미가 있다. 무궁화 고유의 색부터 다양한 색과 소재의 변화로 웨딩 및 클래식 정장과 캐주얼 자켓에도 착용이 가능하다. 무궁화부토니에의 소재는 실크이며, 크기는 무궁화의 실제크기와 같은 비례로 맞추었다. 대략 가로 11.5 cm 그리고 세로 11cm정도 되는 크기이다. 실제 무궁화 고유의 우아하고 강인한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모두 실제 크기에 비례하여 디자인하면서 사실적인 느낌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무궁화 부토니에

<Table 2> Carnation Boutonniere Design Process for S/S and F/W

	Product		Material	Color
S/S		Organza		
		Silk		
F/W		Tweed		
		Suede		

(Photograph by LAFIGURA)

〈Table 3〉 Design Chart of 'The Rose of Sharon' Boutonniere

(Photograph by LAGFIGURA)

디자인 전개의 핵심은 색상의 다양성이 아니라 크기의 다양성이다. 무궁화의 부토니에를 사랑의 열매와 같은 사회적 부토니에, 국회의 무궁화 배지와 같은 국가적인 부토니에, 결혼식을 위한 부토니에 그리고 캐주얼한 일상적 부토니에로 분류하여 크기를 다양하게 변화시켰다. 실제 무궁화의 크기를 중심으로 사랑의 열매, 무궁화 국회 배지 그리고 혼사를 위한 부토니에 실제 치수에 맞추어 새롭게 디자인하였다.

〈fig. 27〉〈fig. 28〉

〈fig.27〉 Rose of sharon boutonniere
(The celebrity, 2015, p. 150)

〈fig.28〉 Rose of sharon boutonniere
(Arena homme+, 2010, p. 49)

V. 결론

현대 의상의 보편성과 다양성간의 관계는 조화로움을 강조한 디자인의 추구방식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서로 맞물려 역동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패션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새로운 의상을 통한 개인의 차별적 표현방식과 그 새로운 의상이 과거와 현재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간의 지속적이고 긴장감 있는 상호작용이다.

패션트렌드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과거의 부토니에와 새로운 부토니에 디자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토니에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며, 남성복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부토니에의 사용과 이에 대한 개개인의 표현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다름을 확인하였다. 시대적 변화에 기여하는 많은 사회적 요소들과 그 중에서 부토니에의 상징적 및 기능적 측면을 핵심으로 연구하였다. 둘째, 부토니에의 역사적 문맥과 기본 기능적 역할을 바탕으로 부토니에의 클래식한 꽃의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계절의 여러 가지 소재의 연구를 통해 기존의 실크 소재에서 S/S시즌의 노방, 오간자의 소재를 디자인에 적용하였으며 F/W시즌의 울, 트위드, 스웨이드 소재에 적용시켜 디자인하였다. 소재와 형태의 구조적인 다양성이 남성 개개인의 표현수단으로서 현대의 트렌드에 맞는 사회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계절적 변화라는 패션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주제를 고려하여 부토니에의 기존의 제약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와 가장 보편적인 상징성을 갖는 꽃 중 대표적인 카네이션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부토니에 디자인에 의미부여하여 사회적 기능과 남성 의상 스타일링의 심미적 개념까지 확장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패션의 근본적인 이해와 트렌드의 흐름을 파악하고, 부토니에라는 장식소재의 상징성과 기능성 및 심미성을 연구하여 대중적, 상업적으로 부토니에 디자인에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References

- Anderson, R. (2009). *Bespoke savile row and smoothed*. London, U. K.: Simon & Schuster.
- Angeloni, U. (2000). *The boutonniere: Style in One's Lapel*. Milford, U.S.A.: Universe publishing.
- Banks, J., Doria D. L. C, & Pulitzer L. (2011). *Preppy cultivating ivy style*. New York, U.S.: Rizzoli.
- Blackman C. (2014). *One hundred years of menswear* (Park, J. H. Trans.). London, United Kingdom: Laurence King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2009).
- Capture the streets (2012, June 12). Retrieved from <http://capturethestreets.com/2012/06/12/pocket-square-boutonniere/>
- Carnation boutonniere (2010, November 18). *Vogue Korea* 132.
- Carnation boutonniere (2012, February 17). *Arena homme+*, 431.
- Carnation boutonniere (2012, January 18). *L'officiel Hommes* 161.

<Table 4> Examples of Varied Sizes for 'The Rose of Sharon' Boutonniere

"The Fruit of Love" Badge	"National Assembly" Badge	Wedding	Casual

(Ilyonews, 2014)

- Charles, J. (n.d.) Singing the marriage register. *Wikiart*. Retrieved from <http://www.wikiart.org/en/james-charles/signing-the-marriage-register>
- Community Chest of Korea (n.d.) *Wikipedia online*.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Community_Chest_\(organization\)](https://en.wikipedia.org/wiki/Community_Chest_(organization))
- Fashion source. (2015, January 18). Retrieved from <http://story.kakao.com/ch/fashionsos/1AfhEBA1rx0>
- Flusser, A. J. (2002). *Dressing the man: Mastering the art of permanent fashion*. New York, U.S.A.: Harpercollins.
- Freegreatpicture (2010). Retrieved from <http://www.freegreatpicture.com/carnation/carnation-flowers-2151>
- Gable, C. (2006, April 4). Retrieved from <http://thehollywoodart.blogspot.kr/2006/04/clark-gable.html>
- Gainsborough, T. (1771). Captain William Wade. *BBC*. Retrieved from <http://www.bbc.co.uk/arts/yourpaintings/paintings/captain-william-wade-40008>
- Genes, A (2010, July 23). The history of the boutonniere, *Ehow*. Retrieved from http://www.ehow.com/about_6768843_history-boutonniere.html
- George, M. (2013). *Marriage customs of the world: An encyclopedia of dating customs and wedding traditions* (2nd ed.). Santa Barbara, U.S.: ABC-CLIO.
- Gracie, O. (2013, August 23). Buttonhole fashion-Boutonniere-Understated accessories. *Men stylefashion*. Retrieved from <http://www.menstylefashion.com/buttonhole-fashion-boutonniere-understated-accessories/>
- Harriette C. (1995). *Jumping the Broom: The African-American Wedding Planner*. New York, U.S.A.: H. Holt.
- Harrod, R. F. (1933). The theory of monopolistic competition. *The economic journal*, 661-662.
- Hemphill, C. S. & Suk, J. (2009). The Law, Culture, and Economics of Fashion. *Stanford Law Review*, 61, 106-107, 146-148.
- History and meaning of carnations (2012, August 23). Retrieved from <http://www.proflowers.com/blog/history-and-meaning-of-carnations>
- Hong, Y. J., Kim, R. R., & Kim, Y. I. (2015).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Fashion Styles of the Generation-X M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5(1), 151.
- Hong, S. Y. (2014, July 15). G-Dragon, Boutonniere earring. *Sports Donga*. Retrieved from <http://sports.donga.com/3/all/20140715/65182790/2>
- Ilyonews (2014, February 24). Retrieved from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71962
- Jean B. (1981). *For a critique of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ign*. Missouri, U.S.A.: Telos press.
- Juarez, J. (n.d.) Slicked-back hair and dark suit with lanvin's boutonniere. *Pinterest*. Retrieved from <http://www.pinterest.com/pin/458522805782901707/>
- Kidder, N. (2015, April, 9). History of the wedding boutonniere. *About style*. Retrieved from <http://weddingtraditions.about.com/od/MarriageTraditions/a/History-Of-The-Wedding-Boutonniere.html>
- Kim, H. S., Lee, S. K., Jo, S. H., & Moon, J. E. (2009). *Style making*. Paju, Republic of Korea: Kyo moon sa.
- Lee, J. J. (2012). *The measure of a man: the story of a father, a son, and a suit*. Toronto, Canada: The globe and mail.
- Lee, H. (2014). *Gentlemen's Fashion*. Seoul, Republic of Korea: Mediawill.
- Lee, Y. C. & Hong, H. G. (2009, July, 10). *Rose of sharon story (Story of the Rose of Sharon)*. Seoul, Republic of Korea: Chung Uh.
- Morning coat history. (n.d.) Retrieved from <http://www.morningdressguide.com/morning-coat/morning-coat-history/>
- Musgrave E. (2009). *Sharp Suits*. London, U.K.: Pavilion.
- O'Hara, G. (1986). *Giorgio Armani's model of men's wear, 1977*. London, U.K.: Thames and Hudson.
- Roland B. (1990). *The fashion system*. (M. Matthew Trans.). Berkeley, U.S.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83)
- Rose of sharon boutonniere (2010, December 17). *Arena homme+*, 1.
- Rose of sharon boutonniere (2015, January 16). *The celebrity*, 150.
- Sanford, K. (n.d.). Concepts: the architecture of hope: on difficulty and innovation. Harvard design magazine. Retrieved from <http://www.harvarddesignmagazine.org/issues/19/concepts-the-architecture-of-hope-on-difficulty-and-innovation>
- Seoul Sanghoe (2013, February 26). Retrieved from <http://seoulsanghoe.tistory.com/104>
- Sharing and Happiness, Fruit of Love* [나눔과 행복, 사랑의 열매] (2013). Seoul, Republic of Korea: Community Chest of Korea.
- Stripe (2008, August 19). Retrieved from <http://matesh.tistory.com/58>
- Style motivation. (n.d.) Retrieved from <http://www.stylemotivation.com/54-bridal-bouquets-and-boutonniere-ideas/>
- Style share (n.d.) Retrieved from <https://www.styleshare/hw0303/3969600>
- The fruit of romance (2014, December 26). Enhawiki Retrieved from <https://mirror.enha.kr/wiki/사랑의%20열매>
- Thorpe J. (2009, October 5). *American Floris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886)
- Umberto, A. (2000). *The boutonniere style in one's lapel*. New York, U.S.A.: Universe publishing.
- Weddbook (n.d.). Retrieved from <http://weddbook.com/search/boutonniere>
- Xoedge (n.d.). Retrieved from http://www.xoedge.com/ImageStage/Objects/0003/0126469/large_image.jpg